

보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수련회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특별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이시며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영의 기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선한 기도의 향을 심 없이 올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에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 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관능의 기도로 건강한 쌍둥이를 얻은 네팔 사누 라야 성도와 봉사자를 통해 주님 사랑을 체험한 김희경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698호 2015년 8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국적 폭염에도 쾌적하고 시원했던 만민 하계수련회 해외 27개국에서 참석한 세계적인 축제 열려



올해에도 만민 하계수련회는 특별했다. 모든 일정 내내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랑의 증거를 새겨 놓으셨고, 참여한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했다(큰 사진은 셋째 날 캠프파이어, 작은 사진은 첫날 도착예배 시 점핑파크 상공 해 주변을 두른 원형무지개①,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교육과 은사 집회 시 간증하는 성도들②③④, 둘째 날 체육대회⑤⑥⑦, 셋째 날 캠프파이어 시 공연⑧).

지난 8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2015 만민 하계수련회'가 27개국에서 참석한 가운데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사랑'(사면 62:11)을 주제로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성도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오셨다. 올해도 사랑의 증거들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련회였다. 첫날부터 해 주변에 원형무지개를 띄워주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 충만하게 일정을 시작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있었던 도착예배를 시작으로 저녁 시간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교육 및 은사집회가 있었다. 이 목사는 교육을 통해 "2013년 수련회는 누구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 질 수 있는 기회로, 2014

년에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올해는 목자의 선과 사랑과 믿음,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봄으로 더 많은 성도가 영의 흐름을 신속하게 타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기간 동안 시원한 바람을 통한 기사(奇事)로 최악의 기운을 조성해 주셨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나 수련회장은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쾌적한 날씨를 유지시켜 주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이 열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받은 것과 같은 역사이다. 뿐만 아니라 은사집회 내내 권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

을 느낄 수 있었다. 각종 암과 피부병, 디스크, 골절, 통증 치료를 비롯 시력, 청력이 회복되고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걷게 되는 등 수많은 성도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단을 가득 메웠다. 이날 자폐증을 비롯해 많은 불치병이 치료됐고, 해외에서 참석한 29명의 농아 가운데 21명의 귀가 열려 소리를 듣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수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이 목사는 성도들이 치료와 응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차례 더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간증을 접수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일부만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날 대대교구별 체육대회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조금의 사고도 없이 사

랑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이었다. 특히 이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은 성도들이 선수로 출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셋째 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캠프파이어를 인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이 목사는 "제 삶은 가난과 질병, 고난의 길이었습니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비로소 참 기쁨과 행복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소망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기며 왔더니 하나님께서 최상의 권능을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은 천기를 주관하시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행복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과 소망이 더해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기도

하면 은혜가 임해 죄를 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지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 육적으로 애용할 때는 육신의 생각 속에 놀려서 낙심하고 자치게 되니 더욱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왜 축복도 못 받고 늘 이런 모습인가.’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운함이 깃들기도 하지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한 대로 비진리에 속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더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고 중심의 기도를 쌓으면 곧 응답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영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합니다.

둘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은총을 확인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지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말씀한 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슬퍼서 감사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요. “제 모습을 발견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되었사오니 더욱 힘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받고 첫사랑의 기쁨 속에 충만하게 달려갈 때를 기억하고 계

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이럴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힘든 일에 쉽게 짜증이 납니다. 감정 나는 일이 있으면 짜르는 말도 하고, 싫은 일을 당하면 오해하고 판단하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육으로 쌓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도 점점 식고 기쁨과 감사도 때납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려 해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성결을 이루고자, 선을 이루고자 매순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녕 영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영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쉬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서 쉬 없는 기도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의 향을 받았다.”며 인정을 해주셔야 쉬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걱정 근심을 잔뜩 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며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낙심과 슬픔 속에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힘이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분भाव나 미움과 서운함 등 악한 감정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누구한테 권면을 받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보다 못하면서 감히 어떻게 나를 지적해?” 하며 서운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악이 있는데 어찌 선한 기도만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선해야 선한 기도를 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악이 있어도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을 선으로 바꾸며 선하게 기도하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남편과 다투

고 난 후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민망해 회개도 하지 못하고 기운을 잃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내가 이렇게 악하니 어쩌나?’ 하며 자책하느라 중심을 모으지도 못하고 중언부언하지요. 또 다른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신세 한탄을 하고 남편의 싫고 미운 것을 털어놓습니다. “악한 남편이 저를 힘들게만 합니다.” 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될 수 없지요.

이런 경우, 모든 문제가 결국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적어도 선을 사모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위한 간구도 선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는데 믿음 없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도 믿음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상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자신의 악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발견한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충만하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녕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의 감사 기도가 나오지요. 이런 감동의 기도를 올리면 마음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사랑이 임하는 만큼 능력이 와서 내 악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벗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동함 속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아름다운 향으로 쌓이고 우리 마음이 더 선하게 바뀌어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이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기도를 울림으로 응답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향하시는 영의 기도를 올려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기도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기도일까요?

첫째, 기쁨의 기도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잃어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며 쉽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기운이 빠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믿음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 잠시 고민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금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참된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녕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죄와 비진리를 버리고자 회개하며 애용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애용을



- 2층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안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부 3:00 PM 4부 9:00 PM 5부 11:00 AM 6부 11:00 PM
주일 저녁예배	7: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8: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9:00 PM
금요일대예배	11:00 A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형 정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원본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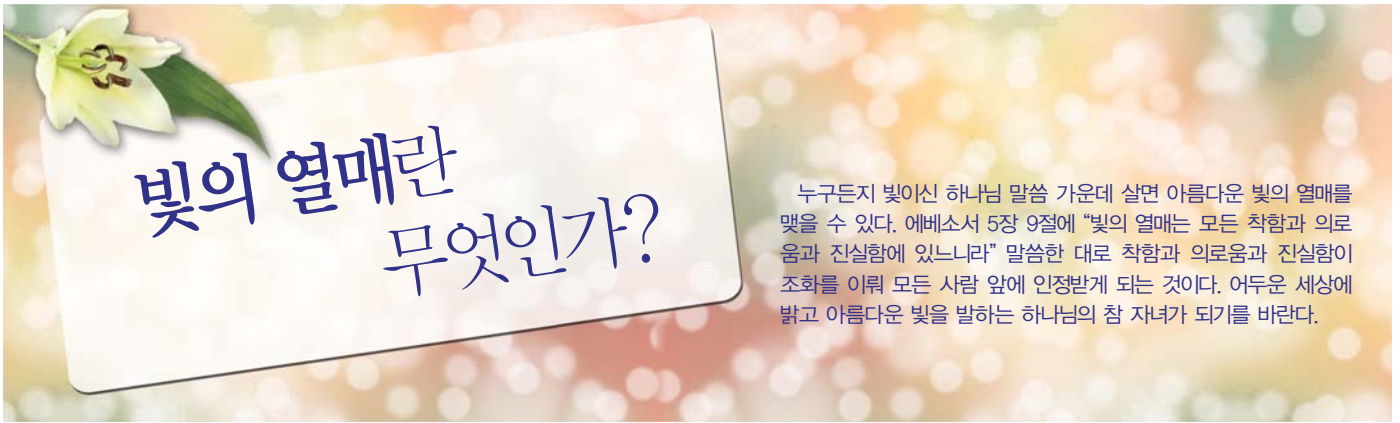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누구든지 빛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조화를 이뤄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 밝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빛의 열매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착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유익을 좇아 악을 행치 않고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므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좇아 행한다.

뿐만 아니라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높임 받고자 하고 들레는 마음 등이 없으며, 범사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좇아 행한다. 이런 착함의 열매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은 다르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미워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꾀꾀 눌러 참는다면 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녕 선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마음에 전혀 감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므로 섭김과 희생 가운데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악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선의 차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을 이룰 때야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따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악한 사람이라도 능히 변화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의로움'의 열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신 대로 마음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죄악을 버리고 선결한 마음을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단 6장).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

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줄을 알면서도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단 3장).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 더 좋은 천국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었기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믿음이 의로움의 열매로 드러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섭기는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해 영광 돌리게 됐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행할 때에 빛의 열매로 드러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거짓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진실함'의 열매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행함과 고백에 담긴 진실한 향만이 하나님 앞에 열납된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이제까지 쌓아온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충만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도 감당한다 하지만 시험이 오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기도를 쉬고 사명을 놓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내는 일이 지체되는 듯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과 행함, 그리고 변함없는 진실함의 열매이다. 로마서 8장 38-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

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개함이 없고,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전진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신랑되신 주님을 뵈을 때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나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p>2015 AUGUST 2015.08.09~08.15</p> <p>주요 프로그램 안내</p>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의 마음 * 공부 잘하는 비결 1 사랑장 4-8 * 임급교회 18-22 3차 영혼육 10-14 * 선 요한계시록 강해 11-15 육체의 길여 6-10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마음발을 개간하자 3-7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교의 신앙 2(이수진 목사) 교만 2(이미영 목사) 축복(이희선 목사) 음기 강해 15(신동호 목사) 여호와의 누구권대(황구영 목사) 경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2(이수영 목사) 영의 마음 이루어면(천우진 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0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3 창조와 과학 12 * 내 마음의 찬양 16 옛날 옛적에 7 * English 8 즐거운 요리 7 * 모두 드려요 31 <p>신규 프로그램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p>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연합대성회 1 회상 4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	--	--	---	---

해외에서 오 편지



**“기적적으로 출산한 쌍둥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누 라마 성도 (48세, 네팔만민선교센터)

제 아내는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을 한다 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산의 고통을 두 번이나 겪었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2012년 12월, 아내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셨더니 임신이었고 쌍둥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은 엄마와 두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니 낙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을 수 없기에 아이들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품속에서 3일 동안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행하기로 마음먹고 저는 이 사실을 담임 이해찬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지요.

목사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라고 권면하시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 만민중앙교회로 기도 제목을 보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임신 4개월째였는데 전혀 태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주일 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단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해찬 담임 목사님도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아내 배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놀람게도 두 아이 모두 태중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할렐루야!

아내는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무척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매일 다니엘절야기도회 마무리 시간에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영상 기도도 꾸준히 받았습니디. 그해 7월, 임신 9개월째 됐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출산 시 많은 출혈을 할 수 있으니 수혈을 해야 하며, 태아의 몸무게도 둘 다 정상아에 훨씬 못 미치는 1kg밖에 안 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산모나 쌍둥이 중 한 쪽을 포기해야 하며 출산을 하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며 아내는 늘 무안 단물(출 15:25)을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병원에 가서 태아의 몸무게를 확인한 결과, 어느 새 2kg으로 늘어나 있었고 아내 또한 수혈할 필요가 없었지요. 할렐루야!

2013년 8월 6일, 아내는 예쁜 두 딸을 순산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아내도 건강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므로 저희 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에게 예쁜 두 천사를 보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고, 권능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은 편인데 마음 한편에는 뭔지 모르는 갈급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대형교회를 찾아다녔지만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으며, 교회에 다니면서도 천국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참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1998년 5월, 언니 김희수 권사님의 전도로 만민중앙교회에서 개회되는 제6회 이재복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된 후 제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그동안 삶 속에서 부딪혀 오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저서와 설교 테이프를 구입해 읽고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니 월례회 봉사, 교회 각종 행사 등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봉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강준 장로님이 예배와 각종 행사에 봉사할 수 있는 안전 봉사팀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후 주일이면 대예배, 저녁예배, 빛과소금교회 예배 등 하루에 몇 차례씩 예배를 드리며 안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해외성회를 이뤄 가시는 당회장님을 뵈며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때마다 성회장소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그 당시 저는 연예인 기획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성회 홍보를 위해서는 보름 이상 자리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장기 휴가는 물론, 유급 휴가로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성회 때마다 짧게는 15일, 길게는 한 달간 머물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철역, 거리, 집집마다 홍보물을 전하고 숙소에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노라 하면 기쁘고 행



복했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능이 눈앞에 펼쳐지는 감동과 전율을 현장에서 느끼며, 더욱 충성하기를 다짐했지요.

201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을 묵도하며 저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참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팔복, 사랑장 등의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정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요.

특히 2015년 올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고자 순종해가니 지난 6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현재 여성교회 기관장과 안전자매봉사대 대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일터인 유럽에셋플러스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남편 이동희 집사의 사려깊은 축복이 임하고 있지요. 이처럼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시행 중인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p>● 남산선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직탄길 64 ☎031652-3961, 010-3276-7712</p> <p>● 연천선민교회 ☎031835-1717, 010-2634-5478</p> <p>● 천안선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p> <p>● 광주선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p> <p>● 서산선민교회 충남 서산시 장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p> <p>● 아산선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p> <p>● 시흥선민교회 충남 개령시 금암로 135 ☎042924-0091, 010-7195-1099</p> <p>● 청주선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p> <p>● 새창선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p> <p>● 동광선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p> <p>● 울산선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월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p>	<p>● 말안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p> <p>● 진주선민교회 ☎055352-5915, 010-9196-3927</p> <p>● 김해선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505-2254</p> <p>● 통영선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읍 남해안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p> <p>● 거제선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p> <p>● 경주선민교회 경북 경주시 백동로 76번길 45-1 ☎054745-5777, 010-3747-5777</p> <p>● 포항선민교회 ☎054281-9267, 010-9439-2073</p> <p>● 남포항선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p> <p>● 구미선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교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p> <p>● 여수선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p> <p>● 목포선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310호 ☎061284-3133, 010-2629-8275</p>	<p>● 무안선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동 해례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p> <p>● 순천선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동길 27, 2층 ☎070-4028-2915, 010-2536-1517</p> <p>● 전주선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함정길 30 ☎063223-9991, 010-4202-2637</p> <p>● 익산선민교회 전북 익산시 명동로2길 6, (3층2층) ☎063853-0675, 010-3637-0263</p> <p>● 군산선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p> <p>● 춘천선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p> <p>● 원주선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57 (개운동) ☎031766-1535, 010-9108-2073</p> <p>● 속초선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63 (3층) ☎033963-0271, 010-7733-1327</p> <p>● 강릉선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정3길 11, 3층 ☎033964-3790, 010-6334-7750</p> <p>● 제주선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p>	<p>●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895-9951, 010-2276-1014</p> <p>●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안로 22, 안원빌딩 2층 ☎031485-9143, 010-6395-0143</p> <p>●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서성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p> <p>● 권선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종로 162 ☎010-7133-9770</p> <p>●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p> <p>● 일산지성전 ☎031905-2419, 010-2276-1014</p> <p>●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평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p> <p>●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릉구 양재로 1508, 8유빌딩 지하 2층 ☎02489-3766, 010-7103-4097</p> <p>●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p> <p>● 수원지성전 강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p> <p>● 경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p> <p>● 고양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p>
---	---	---	--